

거룩한 레토릭을 위한 고찰

— 한국인 청중을 위한 레토릭 설교 연구, John Carrick의 ‘The Imperative of Preaching: A Theology of Sacred Rhetoric’를 모티프로 —

박애란(예음예술신학교)

I. 서문(Introduction)

존 캐릭(John Carrick)의 글은 레토릭(Rhetoric)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이유는 종종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레토릭에 관한 현대적 개념’이 설교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편견을 깨기 위함이다. 또 레토릭의 일차적인 개념(전통적 개념)을 말해줌으로써 원래의 레토릭이라는 개념에는 부정적이거나 퇴조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음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가 발견한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에서의 레토릭의 정의는 “... the art of using language so as to persuade or influence others; the body of rules to be observed by a speaker or writer in order that he may express himself with eloquence.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기술; 화자나 저자가 수사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때 발견되는 법칙들)”(Carrick, 2)이다. 그는 지금의 이 시대는 과학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테크놀로지화된 시대이지만, 정치 영역이나 교회는 위대한 연설가나 설교가를 거의 배출하지 못한 시대라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레토릭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결코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Carrick, 2).

존 캐릭이 “*The Imperative of Preaching: A Theology of Sacred Rhetoric*”에서 다루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신약 기독교를 향해 선포할 때 ‘직설법-명령법’, 그리고 ‘감탄문과 의문문’이라는 패턴과 구조를 활용하셨다는 것이다(Carrick, 5). 거룩한 레토릭의 범주가 (잠재적으로) 이 네 개의 범주보다 훨씬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네 개의 범주에 주목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범주에 매우 근본적인 무언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Carrick, 5).

필자가 존 캐릭의 글을 모티프로 한 “거룩한 레토릭을 위한 고찰”에서 주장하려는 것은 설교의 레토릭을 위한 ‘기술’(technic)이 아니다. 웅변가의 일은 청자에게 어떤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또는 청자의 감정을 적절히 끌어내기 위해, 아니면 청자의 기질적 성향에 대해 적절한 감명을 주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특색 있는 증명의 방법들을 찾는 데 있다(Lawson-Tancred, 25). 하지만 우리의 일은 웅변가의 일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일이다. 우리의 일은 웅변가의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거룩한 레토릭의 방법들을 찾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하나님께서 어떤 레토릭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이 한국적 강해설교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일은 분명 기여가 될 것이다.

필자에게 있어서 레토릭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그러나 ‘설교는 연설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레토릭’이라는 말에 거리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레토릭(수사학, 웅변술)은 말하기 좋아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의 무기라고 생각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레토릭을 정치가들의 연설을 위한 도구나, 말놀이를 위한 기술이나 유희로 이해하게

나, 그럴싸하게 말로써 포장하는 기술 정도로 치부했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시는지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토릭을 사용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려준다.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신 레토릭이다. 레토릭 자체는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레토릭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거룩한 소통의 수단이 되거나 단지 설득을 위한 기술에 머물기도 한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말의 정당한 사용이 유용할 수 있는 반면, 말의 부당한 사용은 해가 될 수 있다(Aristote, 56).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레토릭은 무엇이며, 성경의 레토릭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설교에서 레토릭을 거룩하게(정당하게)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다.

II. 직설법(The indicative)

캐릭은 메이첸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자유주의 설교자는 ‘훈계’(exhortation)를 제공하지만, 전도자는 ‘복음’(gospel)을 제시한다(Machen, 47; Carrick, 7). 복음이란 기정사실(既定事實)에 대한 선포로서 승리에 대한 고지(告知)이며, ‘정보’에 토대를 두고 있다.¹ 오리지널 케리그마(kerygma)는 이미 일어나 사건에 의존한다(Ridderbos, 18; Carrick, 13).

복음은 직설법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반응이란 이미 일어난 사건(복음의 직설법)에 대한 지금 여기서의 경험(복음의 명령법)이다(Ladd, 520; Carrick, 24).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것은 복음의 직설법과 명령법의 ‘순서’이다. 복음은 먼저 명령법으로 시작하지 않고 직설법으로 시작되었다. 선포가 먼저 있는 후에 명령법이 뒤따른다. 그것이 복음의 거룩한 레토릭이 가지고 있는 순서이다.

직설법은 명령법의 기초이며, 직설법에 대한 확신이 명령법의 이행을 독려하고 고무한다(Murray, 220; Carrick, 21).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사실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라고 요구하는 설교를 익숙하게 들었다. 한국 교회의 지난 몇 십 년을 돌아쳐보라. 우리는 왜 그토록 열심이었던가? 물론 자발적으로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동을 한 사람도 많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무언가를 행하도록 요청받았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면 진리에 대해 응답하도록 요청받기 이전에 반드시 진리를 움켜쥐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Stott, 48; Carrick, 26).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은 명령에 익숙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돌아쳐보라. 그것이 무엇에 대한 명령과 순종이었는데... 복음에 대한 순종과 율법주의에 대한 순종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대한 순종을 강요당해왔던 것이다. 왜냐하면 직설법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대부분을 명령법에 초점을 맞춘 설교는 필연적으로 도덕주의나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갖기 때문이다(Carrick, 27).

필자가 판단하기에 지금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사람도

1 눅 2:10, 11; 요 1:1, 14; 행 2:22-24, 29-36; 3:12-18; 10:34-43; 롬 3:24-25; 5:6; 고전 15:3-4; 고후 5:19; 갈 4:4-5; 딤후 1:15; 벧전 2:24; 히 9:26 ...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기를 도약을 위한 재정비의 시기(영혼의 겨울)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기독교인 숫자가 기독교를 나타내는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대형 교회를 통해 드러난 사회적 문제가 전체 기독교의 도덕적 해이(解弛)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현재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왜 그러한가? 오늘날 각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라. 거기에 복음의 진수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설교가 얼마나 되는가?

필자가 한국 교회를 향해 던지고 싶은 설교적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이 들려지는 설교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복음의 직설법이 굳건하게 서있지 못한 데 대한 (확대하자면, 복음의 부재에 관한) 외침이다. 둘째,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 이는 과도한 적용(명령법)이나, 적용만 있는 설교에 대한 외침이다. 셋째, “진정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명령하고 있는가?” 이는 부족한 적용이나 해석의 오류에 대한 외침이다. 진정한 적용은 정당한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복음은 정당하게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직설법). 그리고 복음은 정당하게 적용되어질 필요가 있다(명령법). 넷째, “말하는 자는 누구이며, 듣는 자는 누구인가?” 이는 에스겔 8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으로서 주인이 떠나가 버린 텅 빈 성전에 대한 외침이다. 주인이 없으니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객들만 가득하니 누구에게 하는 명령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III. 감탄문(The Exclamative)

감탄문은 ‘how’나 ‘what’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되며, 강조하거나 감정을 실어 이야기하는 단어·구문 혹은 절이며, 흥분이라는 요소가 있다. 성경은 how(어찌 그리)², what(얼마나, 어떠한)³ 외에도 oh(오!, 오호!)⁴, woe(화 있을진저)⁵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종 매우 단순하게 내뱉음으로써 감탄 지시어들과 상관없이 독자적 감탄을⁶ 표현하기도 한다(Carrick, 31).

조나단 에드워즈(Edwards, 1703-58)의 설교는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거나 부흥을 일으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강조, 긴박성, 격정적인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감탄문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했다(Carrick, 39-40). 영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가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70)가 설교자로서 거둔 놀라운 대중성과 성공의 비결은 그의 드라마틱한 설교에 있다. 그는 온몸을 사용해서 ‘들으라!’ 혹은 ‘보아라!’, ‘아아’ 그리고 ‘오호’ 등과 같은 단어들이나 구문들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다(Stout, 40; Carrick, 42). 마틴로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 1899-1981)의 설교가 갖고 있는 가장 탁월한 특징 중

2 시 3:1; 8:1, 9; 73:19; 78:40; 104:24; 119:97, 103; 133:1; 139:17; 잠 16:16; 마 10:23b-24; 눅 12:49-50; 롬 10:15b 등. 영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특히 시편과 잠언에서 자주 사용하였다.

3 고후 7:10-11; 요일 3:1 등. 흥미롭게도 성경에 그리 빈번히 사용되지 않으며, 바울은 기쁨을 표현할 때, 요한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과 천상적인 기원을 묵상하면서 사용하였다(Carrick, 34).

4 출 32:31; 욥 6:8; 11:5-6b; 23:3; 시 53:6; 55:6; 81:13; 119:5; 단 9:4-5; 마 17:17; 눅 24:25; 롬 11:33; 갈 3:1 등. 기쁨, 슬픔, 바람 등에 대한 감정을 응집시킨 표현이다.

5 사 6:5; 45:9a; 렘 23:1; 겔 13:3; 암 6:1; 미 2:1; 마 23:13, 15-16, 23, 25, 27, 29-30, 37-39 등. 꾸짖음은 ‘애통’과 ‘연민’과 관계된다.

6 시 8:1; 롬 11:33; 고후 7:10-11; 출 32:31; 사 45:9; 마 23:13 등

한 가지는 권위(능력)였다. 그의 설교는 종종 폭발적인 성격을 드러내곤 했는데 그 성격과 맞물리는 것은 그가 사용한 감탄문이다(Carrick, 50). 설교에는 감정이나 흥분의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가 (본질적으로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열정적인 행동이라는 점은 중요하다(Carrick, 51).

굳이 위대한 설교자들의 실례가 아니더라도 설교에서 감탄문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유익한 레토릭의 한 방법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 민족은 흥에 겨워하는데 익숙하며 감정적인 반응이 빠른 민족에 속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유교적인 것과 무교적인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녹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인은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따지는 것보다 감정을 발산하면서 마시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한국인은 ‘감정 발산’에 유능하며 ‘감정 억제’에 무능하다. 한국인은 ‘웜’(warm)보다는 ‘핫’(hot)에 가깝다(강준만, 101-2). 한국인의 기본적인 성향은 외적으로는 유교적 정서에, 내적으로는 무교(shamanism)적 정서에 노출되어 있다(박애란, 157).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질서 의식과 샤머니즘적인 무질서 의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즉 타자(他者) 중심과 자기중심적인 상반된 극단의 태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한국인 특징의 하나이다.⁷ 이러한 이해는 한국의 설교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신학적인 해석만 잔뜩 늘어놓은 설교는 청중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어렵다. 말씀의 권위에 치중하여 이성에만 호소하는 설교는 성도들의 삶을 터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설교자들이 설교로써 성도들의 삶을 터치하지 못하거나 종교적으로도 흥을 느끼지 못하도록 했다면(박애란, 164), 설교자들은 설교에서의 직설법에 이어 감탄문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인 청중을 이해한다면 어찌 이 일에 소홀할 수 있겠는가.

수사학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복작거리는 시장 한복판에서 늘어지게 이야기해서는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배추 한 단에 1,000원!”이라고 해야 한다. 때로 간결한 한 마디는 체계적인 설득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다(안광복, 232).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언어의 간결성이 가지는 효과이다. 짧은 문장 안에 가장 극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사학적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탄문이다. 다만 감탄문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열정의 과잉이다. 미국 웰슬리 대학 정치학 교수 캐서린 문(Katharine H. S. Moon)은 한국인은 대단히 종교적이며 극도로 열정적이라고 했다. “열정은 결코 홀로 거주하는 법이 없으며, 과잉과 짝을 이루어 거주하는데, 열정과 과잉은 한국 사회에 무성하다.”고 말했다. 필자는 한국인에 대한 그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는다. 설교자가 감탄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우리 속에 녹아있는 민족적 정서 가운데, 무교의 영향으로부터 생겨난 “흥”이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감탄문의 적절한 사용은 쉽게 설교로의 감정이입을 일으키고 설교의 장이 만들어 놓은 복음의 영역으로 좀 더 용이하게 진입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인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물론 모든 나라에서 마찬가지일 수 있으나) 설교자는 인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감탄문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피해야만 한다. 만일 설교자가 본문 중심이 아닌 설교자 자신의 해석에 의존한 인위적 설교를 한다거나, 과도한 감정 이입을 유도하거나, 실례가 아닌 허구를 감탄문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뎀니(Dabney)는 “꾸밈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항상 저주 받을 죄악이다.”라는 점은 매우 강조한다(Dabney, 320; Carrick, 54). 설교자가 감탄문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마음의 가득한 것”(눅 6:45)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야 한다. 설교자가 감탄문을 호

7 자세한 내용은 최준식 (2000), 『한국인에게 문화가 없다고?』, 서울: 세계절출판사, 19-27을 참고하라.

과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마음의 경건이며, 그의 영혼의 에너지다(Carrick, 54-5).

IV. 의문문(The Interrogative)

의문문은 직설법의 한 측면(an aspect)이거나 직설법의 하위 부분(sub-section)에 속한다(Carrick, 56). 의문문은 객관적인 사실을 단언한다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오히려 사실을 확립할 수 있게 한다(Carrick, 56-7). 존 케릭은 설교자가 의문문을 사용할 때 세 종류의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음을 소개한다. 세 가지의 질문은 분석적인 질문과⁸ 수사적인(레토릭적인) 질문과⁹ 탐구적인 질문¹⁰이다.

우선 위대한 설교자들의 의문문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설교에서 의문문을 사용하는 데는 영적인 냉혹함이 있었다. 그가 사용했던 의문문들은 이런 것들이다. “... 고의로 관대하게 다루는 죄악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악함과 잘못된 길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은 실제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진정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입니까? ...”(Edwards, 847; Carrick, 73) 에드워즈는 의문문을 적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했다. 에드워즈가 그의 설교에서 공격적으로 나아갔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의문

8 어떤 진술을 분석하는 질문으로서 이 질문은 진술에 대해 일종의 대화를 활용한다. 이 대화는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진술을 분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한 분석적인 질문이다(Carrick, 57). 질문의 목적은 청중들을 자극하고 반응을 보이게 하는 데 있다(Carrick, 58-9). 의문문은 진술들에 대해서 대화하며, 청중들과도 대화하게 한다. 확실히 분석적인 질문은 설교가 갖는 대화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화시켜 준다(Carrick, 103).

9 이 질문은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석적인 질문과 다르다. 수사적인 질문은 구조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강력한 단언의 효과를 가지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온 결론이다. 즉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효과를 누리기 위한 질문이다(Oxford Dictionary; Carrick, 61).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잰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사 40:12-14, 18) 이 구절은 수사적인 질문이 성경 본문 안에서 사용된 가장 분명한 경우들 중의 하나이다.

10 탐구적 질문은 의문문의 각기 다른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대답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질문 형태로서 불확실성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모습이 이 질문의 정확한 본질이다(Carrick, 66).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의 형태는 탐구적인 질문이다. 이 질문은 개인적이다. 전형적인 수사적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자명하다. 반면 탐구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불확실하며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 질문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심성들을 탐구하고 조사하며 깨닫는 경향이다(Carrick, 66, 68). 설교에서 적용은 훈계(명령법)로 할 수도 있고, 일련의 질문(의문문) 형태로도 할 수 있다(Martyn Lloyd-Jones, 78; Carrick, 69).

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였다. 그는 의문문을 통해 청중들을 설득하고 탐구하고 사로잡으며, 그들이 도망갈 아무런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다(Carrick, 73). 조지 윗필드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라는 설교에서 ‘회심’이라는 이슈와 관련하여 그의 청중들에게 도전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 이후에,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된 이후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여태껏 그리스도와 친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별거벗은 영혼을 옷 입혀 주었습니까? 의로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된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George Whitefield, 19; Carrick, 74) 사무엘 데이비스(Samuel Davies) 역시 그의 설교에서 의문문을 사용하는데 그는 의문문을 통해 그의 청중들을 점검한다(Carrick, 74-6). 아사헬 네틀톤(Asahel Nettleton)도 그의 설교에 의문문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설교에서 의문문이 양심을 깨우는 데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Carrick, 76-7). 마틴 로이드 존스 역시 그의 설교에서 지속적으로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의문문을 ‘공격적 요소’로 간주한다. 그리고 우리는 로이드 존스를 설교에서 의문문을 가장 훌륭하게 적용적으로 사용하는 해석가들 중 한 사람으로 여긴다(Lloyd-Jones, 71; Carrick, 77-8).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의문문은 직설법의 한 측면이다.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단순한 직설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장려하지만, 의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사실 단순한 직설법에는 본질적으로 편만한 무언가가 있는 반면, (일반적으로) 탐구적인 의문문에는 본질적으로 편치 않은 무언가가 있다. 탐구적인 의문문이 갖는 전체적인 경향은 청중으로 하여금 자기반성과 자기 점검을 갖게 한다(Carrick, 79-80). 즉 의문문은 설교에서 공격적 요소로 작용하는 예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1948년에 루이스(C. S. Lewis)는 현대인들에 대해 예리한 지적을 했다. “과거 사람들은 마치 고소당한 사람이 심판을 향해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역할이 뒤집어졌다. 현대인들은 그들 자신이 재판관이다.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신다.”(Lewis, 100; Carrick, 80) 우리가 루이스의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인들이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사실이다. 설교가 빈혈 상태라면 그 설교는 날카로움을 간직할 수 없다. 위대한 사람들의 설교에는 날카로움이 있다. 이들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탐구하고 조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청중들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자신들의 청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들의 청중들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재판석으로, 사람들을 다시 피고석으로 자리 잡게 했다.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한 전투에서 설교자의 무기 중 가장 으뜸인 병장기 중 하나는 바로 의문문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Carrick, 80-1).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설교자(주로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는 ‘전파하는 자’, ‘설파하는 자’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전파는 ‘전하여 널리 퍼뜨림’의 뜻을 가지며, 설파는 ‘(1)어떤 내용을 듣는 사람이 납득하도록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함. (2)상대편의 이론을 완전히 깨뜨려 뒤엎음.’의 뜻을 가지고 있다. 복음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감상이 아니라 어떤 능력의 힘으로 사람을 완전히 정복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흔히 목회자를 가리켜 복음을 전파하는 자, 설파하는 자로 인식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때 설교자들이 주로 사용한 수사학은 주로 명령문이었다. ‘믿으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바쳐라...’의 형태를 띤 한국 교회 강단의 명령형은 개인의 실존을 향해 일방적 요구만을 강요한 것이 엄

연한 현실이었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 강단에서 '의문문'이 갖는 역할은 미미(微微)했다. 물론 신설교학이 들어오고 설교학에서 스피치와 설득의 미학이 가미되면서 의문문을 사용하여 설교의 효과를 높이는 설교자들이 간혹 생겨나기는 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 의문문의 효과를 사용하여 질 높은 설교문을 만드는 사람은 흔치 않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의문문은 지성뿐 아니라 감성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존 캐릭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의문문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의문문은 마음과 양심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이 시대에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줄 수 있는 설교의 힘은 세계관의 전복(顛覆)이다. 산업의 발달로 인해 물질 만능과 성공 주의라는 세속 주의 세계관이 자리 잡기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정체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청중들은 영적인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오늘날 청중의 병명(病名)은 향락(쾌락)주의, 물질 만능 주의, 성공 중심주의로 대변된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절실하게 빠져버린 인간 본성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해독제로서 케리그마적 설교가 필요한 시대이다(박애란, 178).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쉽게 구원을 획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빠져버린 인간 본성을 직면하게 하고 죄에 익숙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엿보게 하는 복음의 거룩한 레토릭은 '의문문'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보게 되며 자신의 병명에 대해 알게 된다.

V. 명령법 I (The Imperative I)

싱클레어 퍼거슨(Sinclair B. Ferguson)은 성경 본문 자체가 그러하듯이 설교에서 "직설법들은 명령법들로 나아간다."는 점을 올바르게 강조한다(Ferguson, 193; Carrick, 83). 기독교는 죄인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중대한 선언(복음)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퍼거슨의 말처럼 직설법은 스스로 홀로 서지 않는다. 명령법과 함께 선다. 즉 복음 안에는 '지시' 즉 '요구'가 들어있다는 말이다. 명령법의 첫 번째 요구는 '회개와 믿음'이다(막 1:14-15 산상수훈 등).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명령법의 두 번째 요구는 '성화와 기독교 윤리'이다(Carrick, 86).

명령법은 직설법(하나님의 주권-행하심)을 전제로 한다. 즉 명령법은 인간의 책임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인간의 협력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문집』(Miscellanies)에 실린 글은 매우 탁월하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14)에서 드러나는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며, 전적으로 능동적이다."(Edwards, 14; Carrick, 89) 분명하게 명령법은 직설법을 전제로 하고, 직설법에 의존하며, 직설법에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직설법과 명령법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순서는 질서적 순서에 불과하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은 마치 우리의 성화가 즉각적이며 동시에 점진적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 유기적 연합을 잘 보여주는 성경은 '히브리서'이다. 가령 히브리서 10:19-24, 35¹¹는 명

11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

령법의 급박성을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의 승리에 대한 직설법에 호소한다(Carrick, 93).

위대한 설교자들은 명령문을 적절히 잘 사용하였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해야만 합니다.’라는 동사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으며, 조지 횃필드, 사무엘 데이비스, 로이드 존스는 ‘... 맏시다, ... 하십시오’를 적절히 사용하였고, 특히 아사헬 네틀톤은 복수형을 사용하여 ‘우리 ... 깨달읍시다, 부끄러워합시다, 받으십시오.’의 명령 형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Carrick, 97-106). 그들은 직설법과 명령법 간에 서로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성격과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없는 성격을 아마도 본능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확실히 신약 성경은 직설법을 전제로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명령법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직설법과 명령법을 살펴보자. 필자가 앞서 직설법에 관한 논의에서 밝혔듯이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복음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다. 달리 말하자면 직설법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다. 복음이 들려지는 설교가 어디에 있는가? 사실, 복음은 교회라면 어디에서건 들려져야 하는 마땅한 음성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에서 복음이 들려지는 장소는 어디인가? 혹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매주 낭독하는 본문은 다른데 어떻게 설교는 매번 똑같은 내용인가?” 이걸 한국 교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적 질문이다. 콜른(Kolln)과 그레이(Gray)의 글은 설교학적 수사학을 가르치는 글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독자(청자)의 기대는 어디서 오는가? 당연히 앞에서 읽은(들은) 내용이다. 그것은 단락의 시작(본문의 낭독)이나 제목(설교 제목)일 수도 있고 저자의 인지도일 수도 있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가능성은 작가가 설정해 놓은 것이다.”(Kolln & Gray, 121).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을 낭독하는 일과 설교를 하는 일을 연결하지 못한다. 본문과 설교의 제목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날의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하게하고, 무엇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이 중요한 사안을 놓치고 있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본문 따로 설교 따로’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명령법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한국 교회의 지난날의 과오는 직설법적 전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의 명령법이었다는 데도 있다. 달리말해 한국 교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과도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적용은 그 자체로서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석(복음에 대한 직설법)은 없고 근거를 알 수 없는 적용이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데는 큰 문제가 있다. 적용에 대한 기초(복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적용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은 복음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설교자 개인의 세계관과 청중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목회적 욕심을 바탕으로 발생한 적용인 경우가 많다. 나아가 그러한 적용이 과도하다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과도한 적용의 기초는 복음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 혹은 더 심각하게도 배금주의나 기복주의 신앙 위에 놓여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적용이 아니다. 성경은 언제나 복음의 직설법(해석)을 기초로 하여 명령법(적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난날 우리가 행해왔던 대부분의 명령법이 온전하거나 정당한 명령법일 리가 없다.

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히10:19-24, 35)

흥미로운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의 왓지떨힌 마케팅 기법을 전체주의자들의 설득술로 이야기하고 있는 안광복의 이야기이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충동구매가 쉽게 일어나도록 매장 분위기를 왓지떨히게 한다. “하나 남았습니다!”, “초특가 30분 세일!” 여기저기서 외쳐대는 소리는 지금 눈앞의 상품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구매할 기회를 잃어버릴까 조바심을 갖게 한다. 안광복은 전체주의자들의 설득술을 이와 비교하며, 그들의 설득술을 “설득력은 흥분을 타고 온다.”는 말로 정리한다(안광복, 64).¹² 이는 설교자가 갖는 유혹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위기를 자극하고 흥분시킨다.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 해결책으로서 ‘몇 가지의 행동 지침’(명령문)을 내려주고 그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강요한다. 청중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위기를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비로서 설교자의 제안에 설득 당한다. 전체주의적 설득술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광복은 두 가지를 제안한다. 쇼핑 목록을 적을 것과, 큰 목표나 결론(분명한 해결 목표로서 장기적인 목표)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안광복, 68). 우리에게 큰 목표나 결론은 무엇인가? 복음을 말하는 것과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사학은 세상의 수사학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수사학이 되어야 하며,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이 시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직설법의 회복과 올바른 명령법의 사용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희생시키면서 한국 교회가 외적 성장에 치중해왔다면 이제는 두 가지를 모두 제자리로 회복시킴으로써 한국 교회의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볼 때 교회사의 흐름이나 인간 역사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균형이 깨졌을 때 깨진 쪽을 회복시킴으로써 다시 균형을 유지하려는 회복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치우침의 문제이다. 치우침은 균형의 회복을 위해 기울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간혹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난국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다. 총체적 난국 앞에서는 기울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 나는 지금 한국 교회가 바로 그 총체적 난국의 시기를 맞이한 것은 아닌가 판단한다. 현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행함이다. 다시 말해, 직설법과 명령법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회복되어야 한다.

VI. 명령법 II(The Imperative II- 모범론·구속사 논쟁)

구속사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교에 있어서 거룩한 접근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왔다. 그 거룩한 접근이란 모범론 학파의 ‘원자화’(atomistic)의 반대편에 서 있는 종합적 접근으로서 구속사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 중심은 물론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레이다누스는 구속사 학파의 입장을 요약하기를 “성경의 인물들을 규정하는 설교학적 방법은 쉽게 주관주의로 갈 수 있으며, 저자의 의도에서 비껴나가거나 본문을 왜곡시키고 뒤틀어지게 할 수 있다”(Gredanus, 178; Carrick, 110)고 하였다. 구속사 학파는 ‘본문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나 원자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

12 테러가 일어났다. 누가 했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겁에 질린다. 이때 독재자들은 슬그머니 소문을 퍼뜨려 이번의 테러가 유대인들의 짓이라고 믿게 만든다. 전체주의적 설득술은 위기를 불러 일으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위기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내 놓으며, ‘누구’를 없애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한다((안광복, 65, 67).

가 아니라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구속사 학파(실더(Klaas Schilder, 1890-1952), 홀베르다(B. Holwerda, 1909-52) 등)의 주장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을 사용하는 것이 설교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한다. 구속사 학파의 입장에서 보면 모범론 학파의 그런 설교(사건 중심, 인간 중심)는 필연적으로 주관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도덕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Carrick, 108-11).

한편 모범론 학파의 주장은 구속사 학파의 설교에 대해 너무 자주 객관주의, 지식주의, 학문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설교 장르라고 주장했다(Carrick, 113). 존 프레임(John M. Frame)은 구속사를 강조하는 몇몇 설교자로부터 그들이 '실천적인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전체 설교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다(Carrick, 119). 존 프레임의 주장은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설교가 실천적 영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에드문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의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나 윤리적인 설교 중 어느 한 편으로 극단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경고한다. "우리는 ... 구속사적인 접근과 소위 윤리적인 접근이라고 불리는 것이 서로 대조적인 관계라고 설정하는 잘못을 피해야만 한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달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만날 때마다 윤리적인 요구들과 직면하게 된다. ... 구속사적인 접근은 결코 실천적인 접근과 대조적인 것이 될 수 없다."(Clowney, 79-81; Carrick, 116)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0년 2월 빌립보서 3:17에 관해 설교한 내용은 그의 설교가 강력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범론적인(본보기적인) 요소 또한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설교하기를 "... 성경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추천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들을 겪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을 우리가 좇아가야 할 패턴으로서 모범(본보기)으로 제시합니다. ..."고 하였다(Edwards, 855; Carrick, 124-5). 바울은 고전 10:1-14에서 '본보기'(우리말 성경에는 거울)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한다. 또 히브리서 10장에서 11장으로의 전환은 '선한 증거를 얻은'(히 11:2, 39)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으로 옮겨가는데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본보기들로 옮겨가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믿음과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믿음에 대한 보충적인 본보기들로 붙드는 것 사이를 전혀 이분법으로 보지 않았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선지자들'과 '옴'을 예로 들어 고통당할 때 인내할 것을 권고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룻의 아내를 기억하라"(눅 17:32)는 가르침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은 것은 사실 극히 중차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성(Christocentricity)이 그리스도 일원주의(Christomonism)로 격하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중심성은 모범론적인(본보기적인) 것을 배제하지도 않고, 배제해서도 안 된다. 역사의 직설법은 윤리의 명령법을 배제하지 않으며, 결코 배제해서도 안 된다(Carrick, 130).

필자는 어려서부터 모범론적인 설교에 익숙하게 노출되었었다. 어려서부터 내가 들었던 설교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반복되는 삶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그들의 노력과 인내라는 것이다. 그들의 남다른 노력과 인내는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며 마침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설교자가 된 나는 그 시절의 설교가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긍정적인 것으로는 모범론적인 설교를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 받았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은 조금 더 큰 것인데

성경의 인물들과 나와의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어릴 적 내가 들었던 (사실 많은 한국의 설교자들이 들려주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지나치게 영웅이거나 지나치게 악한 존재여서 나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건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을 떨치기 힘들게 만들었다. ‘정당한’ 모범론 설교가 어떠한가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게 들려준 그 설교들은 성경 인물들과 그들의 사건에 대해 역사 속의 위인과 사건에 불과하다는 인식 더 이상의 것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설교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설교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이다. 설교에서 사람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 그러나 더 좋은 설교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에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섞는 설교이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모범들은 그것이 긍정적이건 혹은 부정적이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명령법을 잠재적으로나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Carrick, 131). 성경은 하나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에 집중하는 해석과 성경에서 모범을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해석을 반드시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성경에서 모범론은 필요의 요소이지 배척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박애란, 52). 우리는 오히려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당한’ 모범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성경의 모범은 직설법으로 기록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우리를 향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건강한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과 적용이 함께 녹아있다. 직설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 갖는 원래적인 모습이고, 명령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이 갖는 원래적인 모습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설교는 단순한 해설도 아니며, 단순한 훈계만도 아니다. 설명과 훈계는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갖고 공존해야만 한다(Carrick, 145-6).

화란에서 시작된 구속사적 설교와 모범론 설교에 대한 논쟁이 한국의 실천 신학에서는 눈에 띄게 (설교학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의 강단은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설교와 복음주의적인 설교가 대립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 교회 안에 실천 신학의 영역이 중요하게 자리 잡은 시간도 짧거니와 더구나 설교학에 대한 관심은 방법론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해석과 적용이라는 중차대한 핵심 사안을 깊이 다루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 교회의 설교학은 전통 설교가 나온가, 신설교가 나온가 하는 식의 논쟁으로 대두되었다.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설교의 형태가 전통적 3대지 설교이면 어떠한가, 내러티브적인 설교이면 어떠한가, 또 귀납적이면 어떠한가 연역적이면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설교의 형태는 어떠한지 각각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 본문이 모든 장르의 문학성을 포함하고 있듯이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복음인가 아닌가?’,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필자는 설교학 분야에서 있어온 전통적 설교와 신설교 사이의 비교 분석에 관심이 많다. 필자의 책 『한국인을 위한 강해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도 다룬 바 전통적 설교와 신설교는 각각 그 기여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전통설교와 신설교의 한계를 넘어서고 각각의 기여를 아우르는 설교로서 ‘한국적 강해설교’를 주장한다. 필자의 강해설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강해설교는 성경의 일정한 본문을 성경 전체의 문맥(거대 담론)과 본문이 처한 정황 안에서 해석하되 하나님에 의도하신 본래의 의도대로 해석하여 현대의 청중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적용하여 삶에 반영토록 하며 이 모든 과정에

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 행하는 설교이다.”(박애란, 58-9) 나아가 한국적 강해설교라 함은 한국인 청중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발견하는 작업이 첨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해설교의 핵심은 세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 ‘본문-해석의 문제, 청중-적용의 문제, 성령-역사의 문제’이다. 강해설교의 어디에도 설교 방법론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필자는 설교 방법론을 놓고 대답하기보다, 전통설교의 유익인 본문 중심(직설법 중심)의 설교와 신설교의 유익인 청중 중심(명령법 중심)의 설교가 어우러지기를 기대한다.

성경 자체가 복음적이며 실천적인데 반해, 우리는 그동안 의식적으로는 복음과 실천을 주장했는지 모르나 행동함에 있어서는 복음과 실천을 서로 등지고 있는 관계라고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설교는 강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직설법만이 전부가 아니다. 설교는 행동을 촉구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 즉 명령법만으로도 좋은 설교는 만들어질 수 없다. 설교는 복음을 토대로 하는 실천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 교회는 양손에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귀하다귀한 두 가지 무기를 갖추고 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꺼려하며,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핑계 삼아 시대를 탓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의 청중들이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복음을 가장한 것들이거나,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이다. 왜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었는가? 인간의 본성은 원래 타락했고 심각한 부패성을 가지고 있다. 설교자들은 그 사실을 언제나 인정해야 하며 그러하기에 더욱더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왜 귀를 막는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아서인가?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인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기대와는 다른 반대의 것을 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달콤한 말과 듣기 좋은 말은 교회의 강단에서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곳에서 지금도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연들로 충분하다. 그들이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설교는 홍수 속의 생수로서 ‘살아있는 복음’이다. 한국 교회 설교자들의 눈이 열려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II. 결론(Conclusion)

기독교는 분명하게 급박한 명령법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직설법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직설법은 항상 명령법을 향해 움직인다. 만약 설교자가 고의적이건 실수이건 복음의 직설법과 명령법을 뒤집는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게 된다. 복음은 직설법과 명령법에 순서를 가진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으며, 만약 설교자가 이 둘을 분리하게 되면 그는 필연적으로 ‘거룩함’을 손상시키게 되는데, 그 누구도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Carrick, 148-9).

앞에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레토릭은 무엇이며, 성경의 레토릭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설교에서 레토릭을 거룩하게(정당하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알아본 네 가지는 ‘직설법, 감탄문, 의문문, 명령법’이다. 되짚어 보자면, 직설법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류에 대한 구속의 완성을 강조한다. 직설법은 빛을 전달하며, 본질적으로 ‘지성’에 호소한다. 직설법은 설교에서 선언적이고 교훈적인 요소가 갖는 중요성에 집중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과 분리될 수 없다. 감탄문은 조금 더 강한 직설법으로서 강조와 감정을 표현한다. 감탄문은 빛뿐만 아니라 열도 전달하는데, ‘지성’뿐 아니라 ‘마음’에도 호소한다. 감탄문은 감정적인 요소가 갖는 중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준다. 의문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과 분리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양심’에 호소한다. 의문법은 설교에 있어서 진실과 대면하게 하며 탐구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준다. 명령법은 인간의 책임과 구속의 적용을 강조한다. 명령법은 근본적으로 ‘의지’에 호소하며,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준다. 명령법은 의문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Carrick, 147-8).

이 네 가지의 표현법은 우리에게 ‘설교학적인 균형’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리적인 설교는 반드시 실천적인 설교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하듯이 말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직설법과 명령법의 은밀한 싸움이 유지되고 있었다. 은밀하다는 것은 실제 설교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학문적 영역에서 ‘교리’나 ‘실천’이라는 문제를 논하고 있었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 설교에서 직설법과 명령법의 신학적 긴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더욱 깊고 풍성한 설교를 만들게 하는 요소로서 의문문과 감탄문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캐릭은 그의 책을 통해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 중 동사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스스로 이야기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동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Carrick, 151).

필자는 존 캐릭의 레토릭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설교에 있어서 네 가지 유형의 동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해석적 성격 | | 적용적 성격 | |
|-----------|-----------|-----------|-----------|
| 직설법 | 감탄문 | 명령법 | 의문문 |
| 선포적 · 선언적 | 열정적 · 강화적 | 지시적 · 지향적 | 탐구적 · 공격적 |

여기에서 현재 한국 교회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사실 한국 교회는 어느 특정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할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총체적인 붕괴 현상을 겪고 있다. 필자 자신부터 어느 한 부분의 보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롭게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각성하고자 이 글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직설법의 부재, 명령법의 오류, 감탄문과 의문문의 그릇된 사용 등은 현재 한국 교회 설교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얼마의 교회들은 직설법만이 한국 교회의 살길이라 하여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치우침을 가져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균형 있는 설교 패턴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다. 복음이 회복되고, 실천이 행해지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필자는 글로서 한국 교회를 향한 애끓는 사랑과 안타까움을 전하고자 한다.

매주 당신의 강단에서 당신의 청중들을 향해 단지 무언가를 조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거룩한 레토릭은 당신에게 큰 유익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통해 올바른 말씀(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을 복음의 세계로 초청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고, 옛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거룩한 레토릭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존 캐릭의 참고 문헌

- Dabney, R. L (1999). *Evangelical Eloquence, reprint of Sacred Rhetoric*. Edinburgh: Banner of Truth.
- Clowney, Edmund P. (1961).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 Edwards, Jonathan (1974).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2 vols., (1834), Reprinted, Edinburgh: Banner of Truth.
- Ferguson, Sinclair B. (1986). 'Exegesis', In *the preacher and preaching: Reviving the Art in the Twentieth*, ed. Samuel T. Logan, Jr., 192-211.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 Greidanus, Sidney (1988).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 Ladd, George Eldon (1974).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 Lewis, C. S. (1990). *God in the Dock: Essays on Theology*, ed. Walter Hooper. Londen: Fount.
- Lloyd-Jones, D. M (1971). *Preaching and Preacher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Machen, J. Gresham (1977). *Christianity and Liberalism*. Grand Rapids: Eerdmans.
- Murray, John (1957). *Principles of Conduct: Aspects of Biblical Ethics*. Grand Rapids: Eerdmans.
- Ridderbos, Hermann (1962). *The Speeches of Peter in the Acts of the Apostles*. London: Tyndale Press.
- Stott, John R. W. (1961). *The Preacher's Portrait: Some New Testament Word Studies*. London: Tyndale Press.
- Stout, Harry S. (1991). *The Divine Dramatist: George Whitefield and the Rise of Modern Evangelicalism*. Grand Rapids: Eerdmans.
- Whitefield, George (1991). *George Whitefield's Sermons*. 3 vols. New Ipswich: Pietan Publications.
-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1933).

참고 문헌

- 강준만 (2006). 『인간사색-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서울: 도서출판 개마고원.
- 박애란 (2014). 『한국인을 위한 강해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그리심.
- 안광복 (2012). 『철학자의 설득법-지성과 감성을 혼드는 소피스트 수사학』. 서울: 도서출판

어크로스.

최준식 (2000). 『한국인에게 문화가 없다고?』. 서울: 사계절출판사.

Aristote (2007).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 이종오 역. 서울: 리젼.

Carrick, John. (2002). *The Imperative of Preaching: A Theology of Sacred Rhetoric*.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Kolln, Martha J. & Gray, Loretta S. (2013). 『래토리컬 그램머(*Rhetorical Grammar*)』. 허수연
역. 서울: 베이직북스.

Lawson-Tancred, H. C. (2007).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이상윤 역. 대전: 도서출판 보
성.